

그대, 무사하소서

202115007 물리치료과 김민석

바람이 분다. 그대가 건넌 그 꿈
동남해 물결은 아련히 내 마음을 달라
생불꽃 물에서 나는 거둬오
그대의 이름, 숨결보다 조용히 불러보며

창칼 아래에도 불은 오르려나...
그대 눈빛에 깃들 자유의 꿈
나는 기다리오. 먼 거리 끝에
핏빛이 아낀 그대의 웃음이 피어나길

내 손이 닿지 못한 그 거리
그저 그림자 되어 당신을 따르네
다치지 말아요, 마리우스
이 작은 마음도 함께 세우고 싶소

그리고 돌아오오,
혁명의 깃발 아래
그대여, 나의 사랑, 나의 별
이 밤의 끝에서 나의 편을 외



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

고전 도서명

레미제라블 <빅토르 위고>

작품 설명

이 작품은 『레미제라블』을 코제트의 시점에서 바라본 시화로, 사랑과 혁명, 생명과 이념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여인의 간절한 기다림과 기도를 담고 있다. 시의 제목 <그대, 무사하소서>에서 “그대”는 사랑하는 마리우스를, “무사하소서”는 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기도를 의미한다. 별은 희망과 기다림의 상징이며, 코제트의 마음 속 마리우스의 존재감을 드러낸다. 혁명의 깃발은 희생과 죽음, 변화의 상징인 동시에 코제트의 불안을 나타낸다. 창문은 사랑과 혁명 사이의 거리감을, 불빛과 달빛은 격렬한 현실과 조용한 내면의 사랑을 각각 상징한다. 이 시는 코제트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랑의 간절함과 희망을 담고 있다.